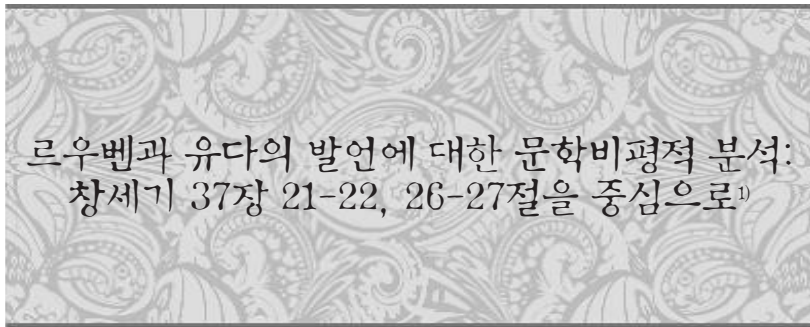


구약논단

제17권 4호(통권 42집) 2011년 12월 31일

김 도형(서울기독대)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에 대한 문학비평적 분석
: 창세기 37장 21-22, 26-27절을 중심으로 86
이 논문은 야곱의 첫째와 넷째 아들인 르우벤과 유다가 위기에 처한 요셉을 구해내기 위해
제시한 진술들(창 37장 21-22, 26-27절)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 두 인물의 발언이 '같은 이야기
에 대한 라이벌 장면'으로써 쌍을 이루거나(duplicates) 중복(doublets)된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
입기의 관점에서 '하나의 문학적인 일치'를 보여주는 본문임을 주장한다.

Kim, Do-hyung The Speeches of Reuben and Judah in Genesis 37: 21-22, 26-27:
A Literary-Critical Study 86



김도형 | 서울기독대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로부터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는 르우벤과 유다가 간청하는 장면 - 21-22절과 30절은 르우벤에 관한 것, 26-27절은 유다에 관한 것 - 을 살펴보는 것이다. 창세기 37장은 종종 두 자료 이야기의 사례로 평가되었다. 폰 라트(Gerhard von Rad), 스페이저(E. A. Speiser), 그리고 베스터만(Claus Westermann) 등과 같은 역사 비평 주석가들은 이들 두 발언들이 J와 E라는 여러 문서들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산출해 낸 것들 사이에서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한다.²⁾ 문서 가설을 통해 이들 발언들은 반복이나 쌍을 이루는 것

1) 본 논문은 2009년 6월 30일-7월 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SBL 국제학술대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Meeting)와 2011년 4월 29일 협성대학교에서 열린 제86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글이다. 귀한 조언과 논찬을 해주신 영국 세필드대학교의 휴 파이퍼(Hugh S. Pyper) 교수님,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Tel Aviv Univ.)의 아이라 아밋(Yairah Amit) 교수님, 대전신학대학교의 이 승현 교수님과 한영신학대학교의 정 석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 "...내러티브에서 하나의 중복된 요소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전자(J)에 따르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다. 후자(E)에 따르면, 요셉은 보호받지 못하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갔다. 그들은 요셉을 구해내려는 르우벤의 계획

로써 '같은 이야기에 대한 대립적인 부분들'로 인식되었다.³⁾ 그 결과 '중복은 여러 문서들에 대한 내러티브의 실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컬어졌다.⁴⁾ 그러나 40여년 전 화이브레이(R. N. Whybray)는 그가 비록 문서 가설을 수용했지만 문서 비평은 J와 E 사이에 르우벤과 유다에 대한 두 개의 평행한 자료들 사이의 이야기를 구분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런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지만, 이미 요셉 이야기에서 문서 가설에 대한 평가들은, 특히 폰 라트의 편집 가설에 반대하면서 그것이 오류인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⁵⁾ 이런 이유로 화이브레이의 주장은 적어도 창세기 37장 이야기들을 읽는 것에 대하여 문서 가설의 한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만일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들이 화이브레이가 주장한 대로 문서 비평에 의한 읽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들을 통해 이 장을 이해하도록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레드포드(Donald B. Redford)

을 방해했다(28a, 29-31절)."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61), 353-354쪽; "이러한 모든 혼선은 일단 내러티브가 본래 독립적인 두 개의 자료로 분리될 때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들 가운데 J는 Israel 이름과 유다를 요셉의 후견인으로,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매대한 상인들로 간주한다. 다른 문서인 E는 야곱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르우벤은 요셉의 친구처럼 호명했다. 이 자료에서 노예 상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우연히 요셉을 발견했으며 이집트에서 보디발에게 그를 팔았다. 각 자료는 독립적이며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추고 있다." E. A. Speiser, *Genesis* (3rd edn; AB, 1;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2), 293-294쪽; "내러티브는 고의적으로 첨가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두 개의 자료를 결합했다. 분명히 두 개의 서로 다른 내러티브가 존재하며 이들 가운데 각각은 다른 이름들을 사용한다. 즉, 르우벤/유다, 이스마엘 사람들/미디안 사람들 등이다." Claus Westermann, *Genesis 37-50: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37쪽.

3)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304쪽.

4) Hugh C. White, "Reuben and Judah: Duplicates or Compliments?," James T. Butler et al. (eds.), *Understanding the Word: Essays in Honour of Bernaerd W. Anderson*, (JSOTSup, 3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5), 75쪽; 알터(Robert Alter) 이후 성서 내러티브에 나오는 반복적인 장면(Type-Scenes)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헌적인 연구들은 최종 형태의 본문 중심 읽기 중심의 수사학적인 방법들로서 한국 구약학계에서도 최근 관심이 고조되어 가는 듯하다. 안 근조, "전형장면(Type-Scenes)을 통한 문헌비평적 읽기: 모세(출 3:1-4:18)와 기드온(삿 6:11-24)의 소명장면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3집 (2006), 7-34쪽; 정 석규, "창세기 16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23집 (2007), 31-51쪽; 정 일승, "하같은 과연 약자 혹은 희생양인가?," 『구약논단』 39집 (2011), 33-58쪽(특히 36-41쪽) 등을 보라.

5) R. Norman Whybray, "The Joseph Story and Pentateuchal Criticism," VT 18 (1968), 522-528쪽.

는 이들 두 발언들에 대한 유사성은 “본래 분리된 문서들(J와 E)의 존재가 아니라 ‘르우벤이 유일한 주인공이었던 이전 사본의 확대’라는 동시 발생적인 이야기인 ‘유다’ 사본에서 비롯된 것”⁶⁾이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 일부 문학 비평학자들에게 “이렇게 가정된 모순은 내재하는 복수 저작자들을 암시하는 것이거나 심지어는 그 본문에 대한 문학적인 불일치로 간주되지 않았다.”⁷⁾

본 논문에서 필자는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들이 하나의 문학적인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자료들의 결합된 결과로 해석되기보다는 내러티브 저자의 섬세한 대화를 위한 장치로써 설명되는 문서에 대한 근접읽기로 부터 가능하다. 이후 필자는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들이 보다 큰 내러티브 단위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증명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르우벤과 유다 사이의 리더십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필자의 제안은, 내러티브의 저자가 이들 두 발언들을 통해 반복에 대한 하나의 문학적인 플롯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야곱의 장자로서 르우벤의 리더십은 약화되는 반면, 유다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2. 창 37장 21-22, 26-27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발언의 비교

창 37장 21-30절은 요셉의 두 형인 르우벤과 유다로 하여금 그를 구하려는 계획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들의 행동은 독자에게 긴장을 고조시키며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구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복수심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대의 독자들이 이들 두 발언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화이트(Hugh C. White)에 의하면, 이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두 사람의 저자와 그러한 자료들을 내포하면서 필연적으로 내부적인 모순을

6) Donald B. Redford, *A Study of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Genesis 37-50)*, (VTSup, 20; Leiden: E. J. Brill, 1970), 141쪽. 레드포드는 J와 E가 평행하는 문서 가설 이론을 거부한다.

7) White, “Reuben and Judah: Duplicates or Compliments?,” 76쪽; 알터는 전통적인 성서학계가 요셉 이야기에서 전체 내러티브가 E와 J라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분리된 자료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형제들 자신들이 살인이나 유괴의 죄책감을 느끼는지 또한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166쪽.

보여주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Seebass)

나. 피할 수 없는 모순들이 있지만 두 개의 독립적인 자료들을 암시하는 평행구들(Gunkel)

다. 편집적인 수준들이지만 두 개의 독립적인 문서 자료들은 아님을 나타내는 모순들과 평행구들(Schmitdt, Redford)

라. 주해로 볼 때 모순이지만 중복은 아니며, 문학적인 단위를 암시(Coats, Rudolph)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으며 어떤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들 주장 사이에 유일하게 공통된 중심단어는 ‘모순’(contradictions)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이 본문을 ‘전체론적으로’(holistically)⁹⁾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역사비평 학자들은 이들 두 발언들을 이질적인 자료들로 간주하려는 반면,¹⁰⁾ 창 37장 5-36절을 하나의 문학적인 단위로 간주하는 코오츠(Coats)가 말하기를, “그들[르우벤과 유다]의 역할은 중복이 아니다... 이들의 역할은 플롯에서 두 개의 분명한 원리들을 보여주는 일부로써 서로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더 나아가 코오츠에 따르면, 이들 두 형제들은 “상반된 행동에 의해 플롯의 긴장감을 더한다.”¹²⁾ 필자는 이러한 진술에 동의한다. 물론,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들은 문서 가설의 입장에서 중복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선량한 형제들로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¹³⁾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인물

8) White, 윗글, 81쪽.

9) John Barton,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 in Biblical Stud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127-129쪽.

10) 문서 가설의 구분에 관하여 *Encyclopedia Judaica*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Ltd., 1971) 제7권에 있는 “Genesis, Book of,” 391-392쪽을 보라. 이에 따르면, 2절 중반절-20절, 25-27절, 28절 중반절은 J 자료에 속하지만, 21-24절, 28절 상반절, 28절 하반절-36절은 E 자료에 속한다. 1-2절 상반절은 P 자료로 구분된다.

11) George W. Coats, *From Canaan to Egypt: Structural and Theological Context for the Joseph Story*, (CBQMS, 4; Washington, D.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76), 69쪽; 창 37장 5-36절의 문학적 단위의 이해를 위하여 같은 저자의 책,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271쪽을 보라.

12) Coats, 윗글 (1976), 69쪽.

13) Coats, 윗글 (1976), 69쪽.

성격상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더욱이 창세기 37장의 전체적인 이야기 맥락에서 같을 수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요청하는 두 형제의 내재적인 동기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으나 그 결과 또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면적으로 이들 두 형들의 목적은 요셉의 생명을 형제들로부터 구하려고 시도하지만, 르우벤의 요청은 요셉을 구덩이(cistern)에 던져지는 결과를 낳게 되며 유다의 요청은 요셉을 외국인 무역 상인들에게 파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비록 요셉을 구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모두 좋은 것이지만, 이 이야기의 저자는 각각 그들의 역할들을 부여하고 각 장면들에서 그들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활용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들 두 인물들의 발언들 사이에 대조되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창세기 37장에서 선한 형제들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¹⁴⁾ 특히, 21-22절에서 요셉을 구하려는 르우벤의 요청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던대라(창 37: 21-22 개정개역).

르우벤은 네 번의 진술을 한다. 첫째는 형제들이 요셉의 생명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다(צַדִּיק וְנָכוֹן אֵלֹהֵינוּ לֹא יִשְׁכַּח לָנוּ נַפְשׁוֹ, 15) 둘째, 요셉의 피가 보여

14) Redford, 윗글, 133쪽; 대조적으로 브루그만(Brueggemann)은 그의 주석서(*Genesis*, 304쪽)에서 르우벤과 유다 모두 겁이 많은 인물로 평가한다.

15) נָכוֹן(나케누) 동사와 관련해서 영어 사본들은 히필 미완료 1인칭 복수와 3인칭 접미형 단수 코호타티브(cohortative)로써 “우리가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자” NRSV, JPS) 또는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NKJV)로 번역된다. 그러나 웬햄(Wenham)은 “우리가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로 제안한다. 웬햄에 따르면, “르우벤은 절대적인 금지를 위해 אֵלֹהֵינוּ(예를 들면, 십계명의 경우와 같이) 사용했다.”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4), 354쪽. 본 저자는 21-22절에서 그의 번역을 인용한다. 즉, “르우벤이 이것을 엿듣고 그[요셉]를 그들[형제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된다’. 르우벤은 그들에게 말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이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그를 넣지만, 손을 대지는 말라’. 이것은 르우벤이 형제들의 손으로부터 요셉을 구하고자 했으며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위함이었다.”

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다(אֵלֹהֵינוּ לֹא יִשְׁכַּח לָנוּ נַפְשׁוֹ, 알-티쉬페쿠-담). 세 번째 그의 진술은 요셉이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도록 요청했다는 점이다(וְהִנְחִיתֵנוּ אֶת־יֹסֵף בְּבִקְעוֹן הַיָּבֵשׁ וְהָיָה אִתּוֹ כְּאֶחָד מֵהַבָּנִים, 하쉬리쿠 오토 엘-하보르 하제 아세르 바미드바르). 네 번째 르우벤의 발언은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אֵלֹהֵינוּ לֹא יִשְׁכַּח לָנוּ נַפְשׁוֹ, 베야드 알-티쉬레후-보). 이것에 대한 비교를 위해 유다의 직접적인 발언은 창 37장 26-27절에서 볼 수 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나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창 37: 26-27 개정개역).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유다의 발언들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요셉을 죽이려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그의 발언에는 네 가지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 요셉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점이다(אֵלֹהֵינוּ לֹא יִשְׁכַּח לָנוּ נַפְשׁוֹ, 마-베짜 키 나 하로그 에트-아히누). 둘째, 만일 형제들이 동생을 해친다면 그들이 요셉의 피를 은닉해야 한다는 것이다(אֵלֹהֵינוּ לֹא יִשְׁכַּח לָנוּ נַפְשׁוֹ, 베키시누 에트-다모). 셋째,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외국 상인들에게 팔자고 설득한다(אֵלֹהֵינוּ לֹא יִשְׁכַּח לָנוּ נַפְשׁוֹ, 레쿠 베님케레누 라 이스메엘림). 마지막으로, 유다는 요셉이 또한 그들의 형제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말아야한다고 설득한다(אֵלֹהֵינוּ לֹא יִשְׁכַּח לָנוּ נַפְשׁוֹ, 베야테누 알-테 히보 카야히누 베사레누후). 이상과 같이 르우벤과 유다의 두 발언들에 대한 구조는 다음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대칭을 이룬다.

두 형제의 발언들 사이에 나오는 모티프의 대칭적 구조

르우벤	모티프	유다
가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생명	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이면 무엇이 유익할까
나 피를 흘리지 말라	피	나 [우리개]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다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라	처분	다 자 [우리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	라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유다와 르우벤에 의한 발언들은 분명히 위의 주제들과 관련해서 볼 때 유사해 보인다. 이미 진술한 대로, 창세기를 연구하는 많은 자료 비평학자들은 이러한 유사성이 두 개의 개별 자료들의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베를린(Adele Berlin)은 말하기를, “창 37장 18-30절이 어떤 문서이건 간에 그것들은 현재 본문 아래에 놓여있을 뿐이며 아마도 이것은 자료 비평에서 사용되는 기준에 의해 발견될 수는 없다”¹⁷⁾고 진술한다. 더 나아가 그녀는 “...본문에는 공백이나, 불일치, 반복, 그리고 성서 내러티브에 있는 단어에 변화가 있다”¹⁸⁾고 말한다. 사실상, 자료 비평은 내러티브 안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음을 제안할 수 있고 그 자료가 일반적으로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 가설은 내러티브를 함께 묶는 수사학적이고 시적인 특성들을 무시한다.¹⁹⁾ 그 결과, 이 방법론은 독자를 위해 본문의 의미를 창출하지 못한다.

자료 비평과 같은 역사 비평적 접근 방법들은 본문의 의미와 구조의 깊이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창세기 37장의 경우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들에 대한 유사성이 서로 다른 문서들의 단순한 배열이 아닌 의

16) 폰 라트는 이들 두 연속된 발언들을 자료 비평적 관점에서 '이중 가닥' (double thread)이라고 부른다. von Rad, 윗글, 353쪽; 스파이저는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들로 포함되는 21-30절이 '불일치, 중복, 모순'으로 특징된다고 주장한다. Speiser, 윗글, 293쪽.
 17) Adele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121쪽.
 18) Berlin, 윗글, 121쪽.
 19)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Berlin, 윗글, 121쪽; Coats, 윗글, 69쪽을 보라.

도적으로 반복을 사용하고 있는 저자의 문학적 기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²⁰⁾ 르우벤과 유다에 의한 각각의 세 발언들은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문장들의 방식과 발언들의 초점은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르우벤의 발언들은 일반 명령법 동사 세 번(나, 다, 라)과 1인칭 복수 히필 미완료형(의미상 권유법, cohortative)을 한 번(가) 사용하는 반면, 유다는 1인칭 복수 미완료형을 첫 번째(가)와 두 번째(나)에서 사용하며, 세 번째(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데 의미상으로는 권유법에 해당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3인칭 여성 단수 미완료 간접명령법 (Jussive)을 사용한다. 그러나 마지막 간접명령법 동사는 접속사 ו(키)와 함께 유다의 구체적인 설명이 곁들이는데 그 이유는 형제들이 무역 상인들에게 왜 요셉을 팔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 때문이다. 이것은 저자가 선택했던 방식에 따라 의도 및 관심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동사 형태 사용의 차이는 두 형제의 성격묘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발언자의 초점에 대하여 살펴볼 때 형제들을 향한 두 발언들의 동기도 각기 다르다. 즉, 화자(narrator)는 (요셉을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위한) 르우벤 측면에서 분명한 동기를 진술하는 반면, 유다의 동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독자는 그것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인지 혹은 요셉이 그의 형제이기 때문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러한 차이들의 결과들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의 본문은 하나의 총체적인 작품인 '통합된 실재'(a unified entity)²¹⁾ 또는 '통합된 작품'(a unified product)²²⁾으로 다시 읽혀질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독자에게 최종적인 본문의 시학(poetics)은 본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재구성된 초기의 익명의 문서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보다 더욱 의미심장하다.²³⁾ 비록 한편으로는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 이름들 사이에 호칭 전환과 다른 한편, 야곱과 이스라엘 (창 37, 42-43장)의 이름이 문서 가설에서 각각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이것이 독자들에게 최종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들 사이에 대조는 전자의 경우 요셉을 그의 아버지

20) Alter, 윗글, 88-113쪽; Ackerman, 윗글, 85-113쪽.
 21) Berlin, 윗글, 120쪽.
 22) Berlin, 윗글, 121쪽.
 23) 알터는 말하기를, “비록 이들 두 버전들이 현대의 전통적인 일치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모두 조화를 이루지 않지만, 저자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둘 다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Alter, 윗글, 166쪽.

게 데려가기 위한 분명한 동기가 보이는 반면, 유다는 야곱을 언급하지 않고 실체적이며 자기이익적인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두 발언들은 단순히 반복적이지 않으며 문서 가설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르우벤 대 유다: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유다와 르우벤의 각 발언들에 다시 돌아와서 이를 살펴보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죽임(מָוַם/מָוַת 나카/하라그)과 피(דָּם 담)이다. 세 번째는 요셉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결단과 관련된다. 즉, 유다는 요셉을 이방 무역 상인들에게 팔 것(מָכַר 마카르)을 제안²⁴⁾하는 반면, 르우벤은 그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것(שָׁלַח 살라크)을 제안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형제들에게 그들 손(יָד 야드)으로 요셉을 직접 해치지 말라는 연속적인 요청이다. 유다의 마지막 발언은 르우벤과는 대조적으로 가족 공동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창 37: 27b). 결과적으로, 저자는 본문에서 형제들 사이에 요셉을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르우벤과 유다가 제시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이라는 측면에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보여 주려는 것을 의도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두 발언의 특징들을 상세하게 고려한다면, 베를린은 르우벤이 형으로서 다소 예민하고 감정적이라고 논의한다. 반면, 유다는 보다 논리적이며 실체적이라는 것이다.²⁵⁾ 레드포드는 르우벤의 역할이 ‘도덕적이며 문학적인 우위성’이라는 측

면에서 훨씬 낫다고 주장한다.²⁶⁾ 르우벤이 21절과 22절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로부터 그를 지켜내려는 점은 사실이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도덕과 문학적 우위성)로 그들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오히려 르우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예를 들면, 르우벤은 요셉이 이방 무역상인들에게 팔렸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즉,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르우벤이 그곳에 없었다고 언급하지 않고 대신 요셉이 팔린 이후에 그를 구하려고 구덩이를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생소하게 다가온다. 화자는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30절에서 화자는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요셉이 구덩이에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요셉과 함께 집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한 르우벤의 관심이다. 장자로서 르우벤의 고민은 독자들로 하여금 화자에 의해 묘사되는 것과 관련해서 — “...그르우벤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2절 개정개역) — 분명한 동기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화자로 하여금 르우벤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려는 것이다. 이는 르우벤이 장자로서 형제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레이터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르우벤이 도단(Dothan)에서 요셉과 함께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있다. 반면, 유다는 요셉과 함께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렀다. 유다는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형제들에게 요셉을 구해야 하는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지만,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빠르고 강압적으로 말한 이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21-22절). 이러한 두 형제의 상반된 행동은 독자들로 하여금 형제들 가운데 르우벤과 유다의 역할 및 그들의 위치를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적인 암시임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24)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파는 행위는 이스라엘 법에서 살인에 해당한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 16 개정개역). 그리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신 24: 7 개정개역).

25) 베를린은 르우벤과 유다 모두 선량한 수사학(good rhetoric)을 사용하지만, 유다의 발언은 르우벤과 다르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이유로서 유다가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첫째, 유다가 주장하기를 요셉을 죽임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요셉을 파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둘째, 요셉은 ‘우리의 형제’ (두 번 언급)이며 ‘우리의 혈육’이라는 것이다 - 이것은 유죄의 요소를 자극하는 것이다.” Berlin, 윗글, 119쪽. 베를린은 계속해서 문서 가설에 대한 레드포드(Redford)의 구분을 인용하면서 르우벤은 보호자 역할을 하며 유다는 좋은 형제라는 것이다. 베를린, 윗글, 117, 121쪽을 보라.

26) Redford, 윗글, 133쪽.

27) 코오츠는 르우벤이 말하는 두 개의 직접 표현들이 문체상의 고안으로써 ‘두 개의 발언들’ (two speeches) 또는 ‘이중 발언들’ (double speeches) 이라고 말한다. Coats, 윗글 (1976), 16, 63쪽; 액커만(Ackerman)에 따르면, 유다와 르우벤의 발언들은 요셉이야기에서 ‘중복’에 해당하고 이것은 저자의 문학적인 고안 장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러 두 번 이집트로 여행하며...두 번 곡식 자루에 돈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집트로 벤야민을 보내도록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두 번 시도하며,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정착하도록 두 번 초대 받는다...” Ackerman, 윗글, 85-86쪽.

해밀톤(Victor P. Hamilton)은 주장하기를, 르우벤은 형제들이 떠나고 난 이 후 비밀리에 그 구덩이로 다시 돌아올 것을 계획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여백이나 간격(gap-filling)의 가능성은 르우벤이 '빌하와 불미스러운 동침으로 인해 아버지 아곱과 대화가 단절되게끔'(창 35: 22) 만들었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요셉이 제외된다면 유다가 아곱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다에게 반사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우리가 해밀톤의 견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첫째, 요셉을 구 하려는 르우벤의 동기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이다.²⁹⁾ 그의 형제들은 르우벤의 계획에만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해밀톤의 주장은 단지 가정에 불과하며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저자가 실제로 르우벤을 장자로서 그의 위치로 복귀시키려는 의도였다면 르우벤의 계획이 결국 실패한 것으로 묘사될 이유가 없다. 셋째, 이후에 르우벤은 자신의 아들들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아버지 아곱에게 그들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이집트로 베나민을 데려가려는 제안 역시 거절된다(창 42: 37-38). 그러므로 비록 르우벤이 좋은 의도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제안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보다 큰 내러티브의 견지에서 보면 한 명의 등장인물로서는 실패자로 묘사되는 것으로 보인다.³⁰⁾

이에 더하여, 르우벤의 부재는 요셉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인지 혹은 저자가 르우벤에게 이런 사항을 제거하고자 의도한 것이었는지 본문을 통해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비록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 요셉을 구해내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 그는 요셉과 함께 그의 목적을 끝까지 달성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본문은 이유없이 요셉을 홀로 내 버려두려는 것 보다는 그로 인해 형제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하기 위함인지 또는 유다 자신이 제시하는 것 이상의 동기를 부여해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

28)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1995), 418쪽.

29)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그를 죽이려는 형제들의 첫 모의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대체라고 말하기란 어렵다. 요셉의 운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Anthony F. Campbell/Mark A. O'Brien, *Sources of the Pentateuch: Texts, Introductions, Annot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26쪽.

30) 브레트(Brett)는 언급하기를, "그[르우벤]의 인물 성격은 결합이 있으며 족보상에서 그의 위치는 희미해졌다"(창 35: 21-22; 참고 49: 3-4). Mark G. Brett,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111쪽.

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유다와 르우벤 사이에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명 가운데 형제들 사이에서 어느 누가 보다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르우벤이 아곱의 장자였다는 것과 선한 형제로 간주되었다는 사실과는 상관 없이 그는 가장 중요한 때에 요셉과 더불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유다의 직접적인 발언은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적절하고 보다 설득력이 될 수 있다. 유다의 주요한 목적은 요셉의 죽음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 상인들에게 그를 파는 것은 차선책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르우벤은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유다는 성공했다. 이로써, 르우벤과 유다는 21-22절과 26-27절에서 각각 대조적인 역할들을 수행한다. 액커만(James S. Ackerman)은 두 형제에 대한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르우벤은 이야기가 전개될 때 서서히 약해지고 사라질 것이며, 유다는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형제들 가운데 중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창세기 43-44장에서 유다의 극적인 등장을 위해 내러티브는 어느 정도 이를 예비하고 있는가?³¹⁾

진실로 르우벤과 비교되는 유다의 극적인 등장에 대한 이러한 전망은 창세기 43-44장에서 정점을 이룬다. 아곱을 향한 르우벤과 유다의 대조적인 발언들은 창 42장 37절(르우벤)과 43장 3-5, 8-10절(유다)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일 뿐인가? 레드포드는 언급하기를, "유다의 역할은 내러티브 안에서 이차적인 삽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이야기 전체의 문학적인 예술성의 감소(diminution)를 나타내는 것이다"³²⁾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author)는 창세기라는 보다 큰 내러티브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르우벤 보다 유다의 역할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유다가 발언한 부분이 르우벤을 모방한 것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연결성을 강조하는

31) Ackerman, *윗글*, 99쪽.

32) Redford, *윗글*, 132-135쪽; Ackerman, *윗글*, 98-99쪽.

것이며 그들의 행동들 사이에 상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³³⁾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장에 해당하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를 중심 등장인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창 37장 26-27절에 나오는 유다의 역할에 관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비록 액커만과 같은 학자들은 유다가 르우벤과 달리 요셉을 구할 의도가 없다고 믿고 그가 이익을 추구하려한다고 보지만³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상 유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형제들과 협상을 하는 유다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에 있어서 효과적인 동사의 사용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자명하다. 르우벤이 그의 형제들 사이의 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2인칭 명령법 사용과는 대조적으로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통적인 딜레마를 강조하는데 1인칭 복수형 ‘우리’를 처음과 마지막 발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유다의 리더십’³⁵⁾은 이 이야기 다음의 사건들(epsodes)에서 계속되는 역할을 통해 형제들을 중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창 43장 1-14절에서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때에 막내인 베냐민으로 하여금 형제들과 동행하도록 야곱을 설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이다. 반면, 창 42장 37절에서 이집트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려오지 못할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야곱에게 허용하는 르우벤의 충동적인 제안은 분명히 실패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창 44장 16-34절에서 그의 형제들을 위해 이집트의 지배자였던 요셉에게 간청했던 사람이며, 창 46장 28절에서 야곱이 요셉과 대면하도록 미리 보낸 사람도 유다이다. 이와 같이 보다 넓은 범주의 내러티브에서 효과적인 설득자로서 유다의 역할은 창세기 37장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성공적인 간청과 협상을 하는 것에서 미리 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조적으로 장자인 르우벤은 ‘주춤거리며 무능력한’(faltering and ineffectual)³⁶⁾ 모습을 보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다

33) 액커만은 ‘강조’(emphasis)와 ‘지연’(plot retardation)이라는 중복에 대한 고안책으로 이 두 발언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윗글 86쪽을 보라.

34) Ackerman, 윗글, 99쪽.

35) Thomas L. Brodie, *Genesis as Dialogue: A Literary, Histo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361쪽.

36) Brodie, 윗글, 360쪽; Yigal Levin, “Joseph, Judah and the Benjamin Conundrum,” *ZAW* (2004),

시금 아버지 야곱의 후처인 빌하와 동침을 했던 르우벤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다(창 35: 22; 49: 4). 르우벤의 행동은 아버지의 위치를 대신하려는 것을 암시한다.³⁷⁾ 그 결과,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 권리를 잃게 되었다.³⁸⁾ 이런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형제들(창 37: 21-22)과 아버지 야곱(창 43: 36-38)에게 제시했던 르우벤의 발언들은 충동적이며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지 못한 명령들과 주체님은 권위 그 이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요셉을 팔도록 형제들에게 말한 유다의 제안은 오히려 어려운 위기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중재자로서 그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다는 요셉에 대하여 형제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를 지적하기 위해 저자는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만형으로서 명령조로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발언을 하도록 유다를 배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7장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되돌려 보내지 못했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의 인물묘사(characterization)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게 한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다음 장면들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저자의 전략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8장이 유다-다말 중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며 37-50장이라는 중편이야기(novella)의 도입이 되는 창 37장에서 유다의 리더십 역할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들이 자료 비평

223-241쪽(특히, 238쪽); White, 윗글, 73-79쪽; 웨인스테인(Brian Weinstein)은 또한 진술하기를, “그러나, 르우벤은 일관성이 없고...사라진다. 그의 무능함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명확하다.” Brian Weinstein, “Reuben: The Predicament of the Firstborn,” *JBQ* 36 (2008), 196-201쪽(특히, 198-199쪽)을 참고하라.

37) Duane A. Garret, *Rethinking Genesis: The Sources and Authorship of the First Book of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173; Speiser, 윗글, 274-275쪽.

38) Judah Goldin, “The Youngest Son or Where Does Genesis 38 Belong,” *JBL* 96 (1977), 27-44쪽(특히, 37-39쪽).

의 차원에서 J와 E와 같은 문서들로서 단순히 두 개의 비슷한 자료들이거나 이차적으로 편집된 가설로 간주되지 않아야 할 것을 논의했다. 그 대신, 이들 부분의 근접읽기를 통해 저자에 의한 조직적인 내러티브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창세기 37장 본문은 반복의 기술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르우벤과 유다 두 인물들 사이에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르우벤은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구하려는 동기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는 반면 유다의 의도는 불분명해 보인다. 르우벤은 처음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반대로, 요셉을 구하려는 유다의 의도는 르우벤처럼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들은 보다 큰 전체적인 이야기 틀 속에서 연속성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요셉의 족보가 아닌 유다의 족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왕조시대와 그 이후까지 펼쳐지게 된다. 이것은 소위 '요셉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아이러니로 간주될 수도 있다.

진실로, 창세기 37장의 초점은 위협에 처한 요셉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발언들의 결과가 주목된다는 점에서 르우벤 보다는 유다에게 집중이 되어야 한다. 유다의 발언은 르우벤보다 조직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의 형제들은 외국 무역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는 유다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이는 미래에 자신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하도록 연결되는 디딤돌로써의 기능임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생명의 위기에 빠졌던 요셉을 향한 유다의 모호한 동기와 그의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보다 큰 내러티브(창 37-50장)에서 장엄한 서곡임을 알리고 있다.

5. 참고문헌

안 근조, “전형장면(Type-Scenes)을 통한 문헌비평적 읽기: 모세(출 3:1-4:18)와 기드온(삿 6:11-24)의 소명장면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3집 (2006), 7-34쪽.

정 석규, “창세기 16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23집 (2007), 31-51쪽.

정 일승, “하갈은 과연 약자 혹은 희생양인가?,” 『구약논단』 39집 (2011), 33-58쪽.

Ackerman, J. S., “Joseph, Judah and Jacob,” (ed) Kenneth R. R. Gros Louis/James S. Ackerman, *Literary Interpretations of Biblical Narratives: Vol. II*, (Nashville: Abingdon, 1982), 85-113쪽.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Barton, John,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 in Biblical Stud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Berlin, Adele,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Brett, Mark G.,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Brodie, Thomas L., *Genesis as Dialogue: A Literary, Histo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Brueggemann, Walter,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Campbell, Anthony F./O'Brien, Mark A., *Sources of the Pentateuch: Texts, Introductions, Annot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Coats, George W., *From Canaan to Egypt: Structural and Theological Context for the Joseph Story*. CBQMS 4. (Washington, D.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1976).

_____,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Garrett, Duane A., *Rethinking Genesis: The Sources and Authorship of the First Book of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Goldin, Judah, “The Youngest Son or Where Does Genesis 38 Belong,” *JBL* 96 (1977), 27-44쪽.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Levin, Yigal, “Joseph, Judah and the Benjamin Conundrum,” *ZAW* 116 (2004), 223-241쪽.

Rad, G. von., *Genesis: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61).

Redford, Donard B., *A Study of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VTS 20. (Leiden: E. J. Brill, 1970).

Speiser, E. A., *Genesis*. The Anchor Bible 1,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2).

Weinstein, Brian, "Reuben: The Predicament of the Firstborn," *JBQ* 36 (2008), 196-201쪽.

Wenham, Gordon J., *Genesis 16-50*. WBC 2.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4).

Westermann, Claus, *Genesis 37-50: A Commentary*. Translated by John J.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White, Hugh C., "Reuben and Judah: Duplicates or Compliments?," James T. Butler et al., (eds.), *Understanding the Word: Essays in Honour of Bernard W. Anderson*, JSOTSupp 3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5), 73-97쪽.

Whybray, R. N., "The Joseph Story and Pentateuchal Criticism," *VT* 18 (1968), 522-528쪽.

검색어

불일치

반복

내러티브

근접읽기

리더십

The Speeches of Reuben and Judah in Genesis 37: 21-22, 26-27: A Literary-Critical Study

Dohyung Kim, Ph.D.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pleas of mitigation by Reuben and Judah in Genesis 37:21-22, 26-27. Many historical-critical commentators of Genesis believe that a discrepancy exists between these two speeches, which have resulted in the theory of multiple sources, J(Judah and Israel) and E(Reuben and Jacob). They consider these speeches as duplicates or doublets, that is, 'rival versions of the same story.' However, I support a literary approach, which promotes 'a literary unity' in the narrative. A close reading of the text as a subtle communicative device of the author accounts for this variation better than the results of the conflation of sources.

The text represents the technique of repetition in the chapter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character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characters is the explicit mention of Reuben's motives and the hidden implication of Judah's. Reuben has good intentions which are ultimately not realized. On the contrary, Judah's intentions are enigmatic, but his actions ensure the continuation of the story, just as in the end it will prove, against the reader's expectations, that it is his lineage, not Joseph's, that will carry Israel's story forward to the monarchy and beyond.

The focus of chapter 37 is centered on Judah rather than Reub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ir speeches towards the brothers in order to save Joseph. Judah's speech is more systematic and persuasive so that the brothers accept his

www.kci.go.kr

suggestion of selling Joseph to foreign traders. This serves as a stepping-stone for strengthening his leadership for the future. Finally, Judah's ambiguous motivation against Joseph forms a significant prelude to the larger narrative of Jacob and his sons'(Gen. 37-50).

Keywords

Discrepancy

Repetition

Narrative

Close Reading

Leadership

- 투고일: 2011년 10월 1일
- 심사일: 2011년 10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6일

www.kci.go.kr